

9. 행군편(行軍篇)

군이 행군을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험난한 길이다.
언제 어디서 적과 싸움을 벌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병력의 이동은 눈에 띄기 쉬워 적의 공격에 노출된다.

孫子曰 凡 處軍相敵에 絶山依谷하고 視生處高하고 戰隆無登이니 此는 處山之軍也요
손자왈 범 처군상적 절산의곡 시생처고 전릉무등 차 처산지군야

손자 말하길 전쟁터에 임해 적과 마주함에 있어서 산을 넘어 갈 때는 계곡을 따르고, 생지를 보면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높은 곳에 있는 적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산악에서의 전투 요령이다.

孫子曰 凡 處軍相敵에 絶山依谷하고 視生處高하고 戰隆無登이니 此는 處山之軍也요

絶水어든 必遠水하고 客이 絶水而來어든 勿迎之於水內하고
절수 필원수 객 절수이래 물영지어수내

강을 건너면 반드시 물에서 멀리 떨어지고, 적이 강을 건너오면 물가운데에서 맞아 싸우지 말고

絶水어든 必遠水하고 客이 絶水而來어든 勿迎之於水內하고

令半濟而擊之면 利하고 欲戰者는 無附水而迎客하고 視生處高하여
령반제이격지 리 욱전자 무부수이영객 시생처고

반쯤 건너게 하고 공격하면 유리하고, 싸우기를 원할 때는 물가에 붙어서 맞아 싸우지 말고, 생지를 보면서 높은 곳에 위치하여

令半濟而擊之면 利하고 欲戰者는 無附水而迎客하고 視生處高하여

無迎水流니 此는 處水上之軍也오
무영수류 차 처수상지군야

물 흐름(水流)을 안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이는 하천에서의 전투 요령이다.

無迎水流니 此는 處水上之軍也오

絶斥澤이 어든 惟亟去無留니 若交軍於斥澤之中이면 必依水草而背衆樹니 此處斥澤之軍也오
절척택 유극거무류 약교군어척택지중 필의수초이배중수 차척척택지군야

소택지를 지나 갈때는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지나 갈지니, 만약 소택지 내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수초(水草)가 있는 곳에 근거하여 숲을 등진 상태로 싸울지니, 이는 소택지에서의 전투 요령이다.

絶斥澤이 어든 惟亟去無留니 若交軍於斥澤之中이면 必依水草而背衆樹니 此處斥澤之軍也오

平陸은 處易하여 右背高하고 前死後生이니 此處平陸之軍也라
평륙 처이 우배고 전사후생 차 처평륙지군야

평지에서는 편한 곳에 위치하여 오른쪽 뒷편에 고지를 두고, 앞에 사지(死地)를 두고 뒤에 생지를 둘 것이니, 이는 평지에서의 전투 요령이다.

平陸은 處易하여 右背高하고 前死後生이니 此處平陸之軍也라

凡 此 四軍之利는 黃帝之所以勝四帝也니라
범 차 사군지리 황제지소이승사제야

대체로 이러한 네가지 지형의 이용법은 황제가 사방의 왕(四帝: 태호,소호,염제,전욱을 일컫음)들을 이기게 된 이치인 것이다.

凡 此 四軍之利는 黃帝之所以勝四帝也니라

凡 軍은 好高而惡下하고 貴陽而賤陰이니
범 군 호고이오하 귀양이천음

대저 군은 높은 곳을 좋아하며 낮은 곳을 싫어하고, 양지 바른 곳을 귀하게 여기며 음지를 천하게 여기니

凡 軍은 好高而惡下하고 貴陽而賤陰이니

養生而處實이면 軍無百疾이라 是謂必勝이라
양생이 처실 군무백질 시위필승

섭생과 위생을 잘하면 병사들에게 백가지 병이 없게 되는데 이를 필승의 준비라고 한다.

養生而處實하여 軍無百疾이면 是謂必勝이라

丘陵堤防에 必處其陽하고 而右背之니 此는 兵之利也오 地之助也라
구릉제방 필처기양 이우배지 차 병지리야 지지조야

구릉과 제방에서는 양지 바른 곳에 진을 설치하되 (구릉 및 제방을) 오른쪽 뒤편에 둘 것이니, 이는 용병의 유리함이고 지리(地利)의 도움을 얻는 것이다.

丘陵堤防에 必處其陽하고 而右背之니 此는 兵之利也오 地之助也라

上雨水沫至어든 欲涉者 待其定也니라.

상우수말지 욕섭자 대기정야

상류에 비가 와서 물거품이 떠내려 오면 강을 건너고 싶더라도 물살이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上雨水沫至어든 欲涉者 待其定也니라.

凡 地有絶澗天井天牢天羅天陷天隙이어든 必亟去之하고 勿近也니

범 지유절간천정천뢰천라천함천극 필극거지 물근야

무릇 깊은 계곡 지형, 움푹 꺼져 물이 모이는 지형, 산이 험하여 감옥 같은 지형, 숲이 울창한 지형, 소택 지대, 울퉁불퉁한 동굴 지대가 있다면 반드시 빨리 빠져나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凡 地有絶澗天井天牢天羅天陷天隙이어든 必亟去之하고 勿近也니

吾 遠之면 敵 近之하고 吾 迎之면 敵 背之오
오 원지 적 근지 오 영지 적 배지

내가 그것을 멀리하면 적이 가까이 있게 될 것이며, 내가 그것을 마주하도록 하여 적이 그것을 등지게 해야 한다.

吾 遠之면 敵 近之하고 吾 迎之면 敵 背之오

軍旁에 有險阻 潢井 林木 蒹葭 翳薈者어든 必謹覆索之니 此 伏姦之所也라
군방 유험조황정임목검가예회자 필근복색지 차 복간지소야

부대 근처에 험한 곳, 웅덩이, 수풀, 갈대 숲, 가시 덩굴 등이 있거든 반드시 반복 수색해야 되니, 이런 곳은 적의 첩자가 숨는 곳이다.

軍旁에 有險阻 潢井 林木 蒹葭 翳薈者어든 必謹覆索之니 此 伏姦之所也라

敵近而靜者는恃其險也오 遠而挑戰者는欲人之進也오 其所居易者는利也오
적근이정자 시기험야 원이도전자 욕인지진야 기소거이자 리야

적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용한 것은 험함을 믿기 때문이오, 먼데도 도전하는 것은 아군의 진격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저들이) 평탄한 곳에 진을 치고 있다면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敵近而靜者는恃其險也오 遠而挑戰者는欲人之進也오 其所居易者는利也오

衆樹動者는來也오 衆草多障者는疑也오
중수동자 래야 중초다장자 의야

많은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는 것이요, 풀을 묶어 걸리는 것이 많게 한 것은 (우리가) 의심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衆樹動者는來也오 衆草多障者는疑也오

鳥起者는 伏也오 獸駭者는 覆也오
조기자 복야 수해자 복야

새가 날아오르는 것은 복병이 있는 것이요, 짐승이 놀라 달아나는 것은 (아군을) 덮치려는 것이다.

鳥起者는 伏也오 獸駭者는 覆也오

塵高而銳者는 車來也오 卑而廣者는 徒來也오
진고이예자 차래야 비이광자 도래야

먼지가 높고 날카롭게 오르는 것은 적의 전차대가 오는 것이요, 먼지가 낮고 넓게 깔리는 것은 보병이 오고 있는 것이다.

塵高而銳者는 車來也오 卑而廣者는 徒來也오

散而條達者는 樵採也오 少而往來者는 營軍也오
산이조달자 초채야 소이왕래자 영군야

(먼지가) 여러 곳에서 가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땔나무를 하고 있는 것이요, (적들이) 작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속영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散而條達者는 樵採也오 少而往來者는 營軍也오

辭卑而益備者는 進也오 辭強而進驅者는 退也오
사비이익비자 진야 사강이진구자 퇴야

(적의 사신이) 말은 겸손하면서도 더욱 많이 준비하는 것은 진격하려는 것이요, 말이 강경하면서 앞으로 달려 나오려는듯한 자는 물러가려는 것이다.

辭卑而益備者는 進也오 辭強而進驅者는 退也오

輕車 先出居其側者는 陳也오 無約而請和者는 謀也오
경차 선출거기측자 진야 무약이청화자 모야

경전차가 먼저 나와서 양측에 서는 것은 진형을 갖추는 것이요, 아무런 약조도 없이 강화를 청하는 것은 어떤 모략이 있는 것이다.

輕車 先出居其側者는 陳也오 無約而請和者는 謀也오

奔走而陳兵車者는 期也오 半進半退者는 誘也오
분주이진병차자 기야 반진반퇴자 유야

분주히 뛰어다니며 병력과 전차를 배치하는 것은 전투를 기약하는 것이요, 반쯤 전진하다가 반쯤 후퇴하는 것은 아군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奔走而陳兵車者는 期也오 半進半退者는 誘也오

倚仗而立者는 飢也오 汲而先飲者는 渴也오 見利而不進者는 勞也오
의장이립자 기야 급이선음자 갈야 견리이부진자 로야

지팡이에 기대어 서있는 것은 굶주린 것이요, 물을 길으면서 먼저 물을 마시는 것은 목마르다는 것이요, 이로운 것을 보고도 진격하지 않는 것은 피로하다는 것이다.

倚仗而立者는 飢也오 汲而先飲者는 渴也오 見利而不進者는 勞也오

鳥集者는 虛也오 夜呼者는 恐也오
조집자 허야 야호자 공야

새가 모이는 것은 비어 있음이요, 밤에 소리지르는 것은 겁먹은 것이다.

鳥集者는 虛也오 夜呼者는 恐也오

軍擾者는 將不重也오 旌旗動者는 亂也오 吏怒者는 倦也오
군요자 장부중야 정기동자 란야 리노자 권야

군이 어지러운 것은 장수가 위엄이 없는 것이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혼란에 빠진 것이요, 간부가 성내는 것은 게을러져 있기 때문이다.

軍擾者는 將不重也오 旌旗動者는 亂也오 吏怒者는 倦也오

殺馬肉食者는 軍無糧也오 懸甌不返其舍者는 窮寇也오
살마육식자 군무량야 현부불반기사자 궁구야

말을 죽여 고기를 먹는 것은 군량이 없는 것이요, 그릇을 걸어두고 자기 막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이다.

殺馬肉食者는 軍無糧也오 懸甌不返其舍者는 窮寇也오

諄諄翕翕하여 徐與人言者는 失衆也오 數賞者는 窘也오
순순 흡흡 서여인언자 실중야 삭상자 군야

장수가 장황하게 간곡히 얘기하는 것은 병사들의 신망을 잃었음이고, 자주 상을 주는 것은 궁색한 것이요.

諄諄翕翕하여 徐與人言者는 失衆也오 數賞者는 窘也오

數罰者는 困也오 先暴而後畏其衆者는 不精之至也오
삭벌자 곤야 선평이후외기중자 부정지지야

자주 벌을 주는 것은 어려워졌음이고, 난폭하게 한 후에 부하들을 겁내는 것은 (병법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數罰者는 困也오 先暴而後畏其衆者는 不精之至也오

來委謝者는 欲休息也라 兵怒而相迎하여 久而不合하고 又不相去어든 必謹察之니라
래 위 사 자 욕 휴 식 야 병 노 이 상 영 구 이 불 합 우 불 상 거 필 근 찰 지

사자가 와서 거짓 사과하는 것은 휴식을 원하는 것이다. 적군이 분노한 채 대치하고서 오랫동안 전투도 하지 않고 또 철수도 하지 않거든 반드시 깊이 살펴야 한다.

來委謝者는 欲休息也라 兵怒而相迎하여 久而不合하고 又不相去어든 必謹察之니라

兵非貴益多오 雖無武進이라도 足以并力料敵하여 取人而已라
병 비 귀 익 다 수 무 무 진 족 이 병 력 료 적 취 인 이 이

병(兵)이 많다고 유익하다고 볼 일이 아니다. 단지 합부로 진격하지 말고 힘을 합하고 적을 잘 파악하여 취하면 되는 것이다.

兵非貴益多오 雖無武進이라도 足以并力料敵하여 取人而已라

夫 唯無慮而易敵者는 必擒於人이니라
부 유무려이이적자 필금어인

대체로 깊은 생각 없이 적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분명히 적에게 사로잡힌다.

夫 唯無慮而易敵者는 必擒於人이니라

卒未親附하여 而罰之면 則不服이라 不服則難用也라 卒已親附하여 而罰不行이면 則不可用也라
졸미친부 이벌지 즉불복 불복즉난용 졸이친부 이벌불행 즉불가용야

병(兵)들이 아직 친하기도 전에 벌을 주게되면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복종하지 않으면 쓰기 어렵다. 병(兵)들이 이미 친해졌는데도 벌을 행하지 않으면, 역시 쓸 수 없게 된다.

卒未親附하여 而罰之면 則不服이라 不服則難用也라 卒已親附하여 而罰不行이면 則不可用也라

故로 令之以文하고 齊之以武면 是謂必取니
고 령지이문 제지이무 시위필취

그러므로 령을 내림에 글로써 하고 부하를 단련시킴에 무(武)로써 하면 이것을 일컫어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 한다.

故로 令之以文하고 齊之以武면 是謂必取니

令素行하여 以教其民이면 則民服하고
령소행 이교기민 즉민복

법령이 평소부터 잘 행해지면서 그 백성을 가르치면 백성이 따르고

令素行하여 以教其民이면 則民服하고

令不素行하여 以教其民이면 則民不服이니 令素行者는 與衆相得也니라
령불소행 이교기민 즉민불복 령소행자 여중상득야

법령이 평소에 잘 행해지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면 (백성이)따르지 않는다. 법령이 평소부터 잘 행해지는 것은 백성이나 국가(왕)에 서로 득이 되는 것이다.

令不素行하여 以教其民이면 則民不服이니 令素行者는 與衆相得也니라